

뉴트라코어 임실공장 준공

임실군, 건강기능식품 GMP 공장 준공식 개최... 생산 체제 본격 돌입

〔뉴트라코어가 지난 3일 오후 제2농공단지 내 임실공장에서 건강기능식품 GMP 공장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생산 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심 민 임실군수,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박정규 도의원, 장종민 군의장, (주)뉴트라코어 최범락 대표이사과 임직원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주)뉴트라코어는 2018년 법인을 설립,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연구 개발(R&D)하는 기업으로 천연물(와사비잎추출물, 레몬반추출물함량 등) 연구개발에 대한 오랜 경험과 식약처 허가를 통한 독점적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2024년 7월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과 7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임실공장 설립을 본격화했다. 준공된 임실공장은 오후 제2농공단지에 위치한 2,000평 부지에 600평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GMP 공장이다. (주)뉴트라코어는 이 공장을 통해 천연물 소재 기능성 원료 개발에 그치지 않고 완제품을 안정적으로 자체 생산하여 소재의 차별성과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기술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주)뉴트라코어가 지난 3일 오후 제2농공단지 내 임실공장에서 건강기능식품 GMP 공장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생산 체제에 돌입했다.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임실군에 자사 확보 소재 및 신규 천연물 소재를 재배할 수 있는 농장 구축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의 개발을 진행하여 관내 원재료 매입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농가를 위한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범락 대표이사는 “뉴트라코어 건강기능식품 원료 GMP 공장의 준공을 함께 축하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기쁨과 깊은 감사를 느낀다”며 “이곳 전

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 자리 잡은 이 공장은 저희 뉴트라코어가 천연자원의 산업화와 글로벌화를 향해 내딛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주)뉴트라코어 임실공장 준공식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향후 뉴트라코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며 “이번 임실공장 준공으로 오후 제2농공단지 내 식품산업 기업들의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망 기업 유치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순창군, 농촌 왕진버스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최영일 군수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최선”

순창군은 지난 3일 동계면 문화체육센터에서 ‘제33차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맞춤형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순창군과 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종철), 동계농협(조합장 양준섭) 등 3개 기관의 협력으로 추진됐으며,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이정환 본부장, 순창군지부 신종철 지부장, 동



계농협 양준섭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이날 왕진버스는 동계면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양방진료, 구강검사와 교육, 검안·돌보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큰 반응을 얻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올해 마지막 왕진버스 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해 매우 뜻깊다”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왕진버스 사업을 확대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전 도모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사)남원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미국 뉴욕 자넷 센터(Javits Center)에서 열린 북미 최대 식품박람회 ‘2025 Summer Fancy Food Show’에 참가했다.

남원 추어, 북미 식품박람회 참가

남원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 추어 활용 다양한 가공식품 선보여

남원시는 (사)남원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미국 뉴욕 자넷 센터(Javits Center)에서 열린 북미 최대 식품박람회 ‘2025 Summer Fancy Food Show’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 박람회는 북미를 대표하는 B2B 식품 전문 전시회로, 전 세계 식품 유통 바이어, 수입업체, 외식업 관계자, 미디어 등이 대거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다. 남원시 사업단은 MIKKUYA - Taste of Namwon, Korea라는 부스를 통해 남원 지역 특산물인 ‘추어’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선보였다. 전시 제품으로는 △남원추어해장국 △남원추어육개장 △남원추어탕 블록 △미꾸라 켈리 △미꾸라 꾸이랑 등의 추어 제품군으로, 현지 소비자 대상 시식 프로그램과 설문조사를 통해 제품의 수용 가능성과 반응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국 현지 식품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통해 △유통 조건 △가격 △포장 선호도 등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영문 브로슈어 및 샘플 배포 △SNS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등을 통해 제품 홍보 및 후속 협의로 이어질 기회도 마련한 것으로 전했다. 사업단은 이번 박람회 참여를 통해 추어 식품에 대한 해외 시장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해외 박람회 참가 경험을 계기로 추후 해외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추어라는 독특한 식재료가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실질적인 반응을 확인했다”며,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타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제4회 강천산 전국 가요제’ 참가자 모집

제4회 강천산 전국 가요제가 오는 9월 27일 토요일 순창군 강천산 군립공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가요제는 순창군이 주최하고, (사)한국향토음악인협회 순창지회(지회장 한경연)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음악 축제다. 지역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고, 신인 발굴을 목표로 마련됐다. 참가 자격은 연령과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다만 기성 가수나 기존 가요제 수상자는 ‘신인 발굴’이라는 행사 취지에 따라 참가가 제한된다. 참가 신청은 8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참가자는 네이버 폼 링크 접속, QR 코드 스캔, 신청서 이미지 전송 등에서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3만 원이며, 신청과 동시에 지정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참가 접



수와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국장(전화 010-8344-9409 / 063-782-7521)으로 하면 된다. /순창=이왕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임도사업 평가 산불진화임도 부문 1위

임실군이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 임도사업 평가에서 산불진화임도 부문 1위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임도 신설사업지를 대상으로 도 산림환경연구원과 대학교수, 산림공학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들의 현장평가와 자료 평가를 통해 실시됐다.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은 임도는 임실군에서 시행하여 실행면적인리 일원에 개설한 두곡~창인 산불진화임도(0.68km)로 임실군산림조합에서 시공했다. 해당 구간은 임도 계획수립의 적정성, 시행 과정의 적절성 등 자료 평가 항목과 절·성로 사면 및 노면의 안정성, 배수시설의 적정성, 환경친화성 등 현장평가 항목에서 평가위원들로부터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면서 2028년도 임도사업 예산 국·도비 인센티브를 증액받게 되어 임도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실=전충영 기자

순창군, 상반기 신속집행 2년 연속 도내 2위

순창군이 다시 한번 역동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에서 2년 연속 도내 2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속히 재정을 투입한 결과, 올해 상반기 총 예산 3,205억 원 중 1,768억 원(55.1%)을 조기 집행했다. 이는 정부 목표치인 54.5%는 물론, 군 자체목표인 55%를 모두 초과 달성한 수치다. 군은 그동안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 △신속집행 추진 상황 보고회 △일일 집행상황 관리 △사전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신속 완료 등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이번 성과는 지난해 이월사업비를 40% 이상 획기적으로 감축해 예산효율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